(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17-0025906
(43) 공개일자 2017년03월08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7G 9/10 (2006.01)
(52) CPC특허분류
A47G 9/10 (2013.01)
(21) 출원번호 10-2015-0123019
(22) 출원일자 2015년08월31일
심사청구일자 2015년08월31일

(71) 출원인
노근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방아로133번길 24
(72) 발명자
노근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방아로133번길 24
(74) 대리인
유미특허법인

전체 청구항 수 : 총 7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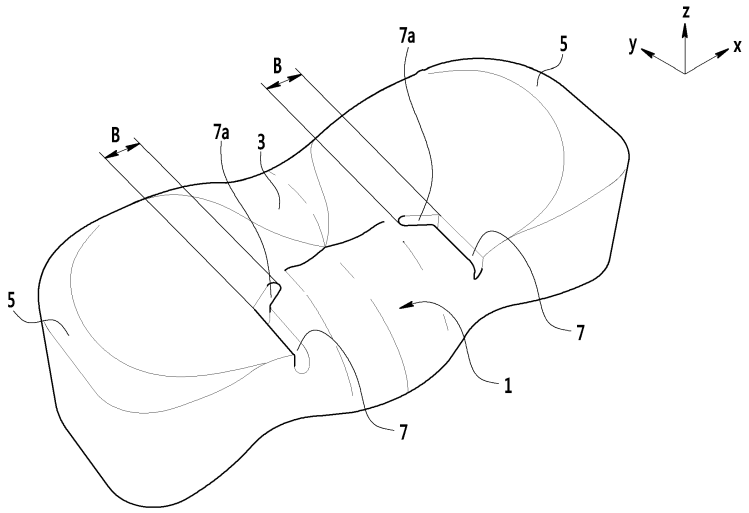
(54) 발명의 명칭 **베개**

(57) 요 약

본 발명은 사용자의 경추를 편안하게 받칠 수 있으면서도 사용자의 다양한 머리 모양과 크기 그리고 취향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 사용상의 안락함과 목 건강에 이로운 베개를 개시한다.

본 발명의 베개는 사용자의 경추를 지지하는 경추 받침부, 경추 받침부에서 연장되어 사용자의 후두골을 지지하는 후두골 받침부, 경추 받침부와 후두골 받침에서 양측으로 연장되는 측면 연장부를 포함하며, 경추 받침부의 측면의 양단과 측면 연장부 사이에 배치되는 당김방지홈부를 포함한다.

대 표 도 - 도1



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사용자의 경추를 지지하는 경추 받침부,

상기 경추 받침부에서 연장되어 사용자의 후두골을 지지하는 후두골 받침부,

상기 경추 받침부와 상기 후두골 받침에서 양측으로 연장되는 측면 연장부를 포함하며,

상기 경추 받침부의 양단과 상기 측면 연장부 사이에 배치되는 당김방지홈부

를 포함하는 베개.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당김방지홈부는

사용자가 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경추와 나란한 방향으로 제공되는 베개.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경추 받침부와 상기 후두골 받침부 사이에는

상기 당김방지홈부가 연장되는 연장 당김방지홈부가 전체 또는 일부 구간에 제공되는 베개.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경추 받침부는

가운데 부분이 위쪽으로 볼록한 모양의 라운드를 이루며 가운데 부분의 높이에 비해 양단의 높이가 높게 배치되어 이루어지는 베개.

청구항 5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경추 받침부와 상기 후두골 받침부의 저면 측에는

높이 조절을 위한 높이조절홈부가 제공되는 베개.

청구항 6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높이조절홈부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높이조절패드가 삽입되며,

상기 높이조절패드는

서로 겹쳐져 배치되는 제1 패드와 제2 패드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1 패드에는 상기 제2 패드가 수용되는 수용홈부가 제공되는 베개.

청구항 7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높이조절홈부는

개구부의 반대측 벽면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상기 개구부 측으로 경사진 경사면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경추 받침부의 모양을 유지하는 형상유지부가 제공되는 베개.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사용자의 경추와 후두부를 편안하게 받칠 수 있으면서도 사용자의 다양한 머리 모양과 크기 그리고 취향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 사용상의 안락함과 목 건강에 이로운 베개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일반적으로 베개는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잘 때 머리를 받치는 도구이다. 이러한 베개는 라텍스와 같은 재질을 이용하여 푹신하고 유연성이 뛰어나면서도 복원력이 우수한 것이 사용되고 있다.

[0003] 종래의 라텍스 재질의 베개는 유연성이 우수하여 사용자의 경추를 지지하는 부분에서 머리의 무게나 자세에 따라 경추를 지지하는 부분의 옆부분까지 당겨지면서 불편함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

[0004] 또한, 종래의 라텍스 재질의 베개는 높이를 조절할 때 단순하게 높이조절부재를 베개에 끼워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높이조절용 베개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베개가 단순히 높이조절부재에 의해 높이 조절이 이루어질 때 베개가 변형되면서 안락함이 떨어지며 목디스크 환자와 같이 예민한 사용자가 특히 불편함을 느끼는 문제점이 있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0005] (특허문헌 0001) 한국공개특허공보 제10-2015-0038795호(2015. 04. 09 공개)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6]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써,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가 베개를 베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사용자의 경추가 접촉되는 부분인 경추 받침부와 이 경추 받침부가 측면으로 연장되는 측면 연장부가 당겨져 불편함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높이를 조절하면서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상태를 유지하여 목디스크 환자와 같이 예민한 사용자의 안락함을 극대화시키는 베개를 제공하는데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7]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사용자의 경추를 지지하는 경추 받침부, 상기 경추 받침부에서 연장되어 사용자의 후두골을 지지하는 후두골 받침부, 상기 경추 받침부와 상기 후두골 받침에서 양측으로 연장되는 측면 연장부를 포함하며, 상기 경추 받침부의 양단과 상기 측면 연장부 사이에 배치되는 당김방지홈부를 포함하는 베개를 제공한다.

[0008] 상기 당김방지홈부는 사용자가 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경추와 나란한 방향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09] 상기 경추 받침부와 상기 후두골 받침부 사이에는 상기 당김방지홈부가 연장되는 연장 당김방지홈부가 전체 또는 일부 구간에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10] 상기 경추 받침부는 가운데 부분이 위쪽으로 볼록한 모양의 라운드를 이루며 가운데 부분의 높이에 비해 양단의 높이가 높게 배치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011] 상기 경추 받침부와 상기 후두골 받침부의 저면 측에는 높이 조절을 위한 높이조절홈부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0012] 상기 높이조절홈부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높이조절패드가 삽입되며, 상기 높이조절패드는 서로 겹쳐져 배치되는 제1 패드와 제2 패드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1 패드에는 상기 제2 패드가 수용되는 수용홈부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13] 상기 높이조절홈부는 개구부의 반대측 벽면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상기 개구부 측으로 경사진 경사면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경추 받침부의 모양을 유지하는 형상유지부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효과

[0014]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는 상용자가 베개를 베고 누운 경우 경추 받침부가 경추를 지지하면서 눌려질 때 경추 받침부와 측면 연장부의 사이에 제공된 당김방지홈부의 완충 역할에 의해 경추 받침부가 눌려지면서 변형이 되어도 측면 연장부가 경추 받침부 측으로 밀리는 일이 없어 사용자가 안락함을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다.

[0015]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높이를 사용자의 두상의 크기나 다양한 체형에 맞게 베개의 높이를 가변시키는 경우에도 형상유지부가 경추 받침부의 아래 부분의 높이조절홈부의 변형을 최소화시켜 인체공학적 설계에 따른 변형을 줄여 안락함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6]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베개의 외형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베개의 배면측에서 본 외형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3은 도 2의 Ⅲ-Ⅲ부를 잘라서 본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높이조절패드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베개를 도시한 정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높이조절패드가 삽입된 상태의 베개의 단면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7]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부여하기로 한다.

[0018] 도 1과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이고, 도 3은 도 2의 Ⅲ-Ⅲ부를 잘라서 본 단면도로, 베개를 도시하고 있다.

[0019] 본 발명의 실시예의 베개는 경추 받침부(1), 후두골 받침부(3), 그리고 측면 연장부(5)를 포함한다.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예의 베개는 천연 또는 합성의 라텍스 재질 또는 메모리 폼과 같은 합성수지재가 사용될 수 있다.

[0020] 경추 받침부(1)는 사용자가 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사용자의 경추 부분을 지지하는 부분이다. 경추 받침부(1)는 가운데 부분이 위쪽으로 볼록한 모양의 라운드를 이루며, 가운데 부분의 높이에 비해 양사이드측의 높이가 높게 배치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

[0021] 후두골 받침부(3)는 경추 받침부(1)에서 y방향(도 1 기준)으로 연장되며 사용자가 누웠을 때 사용자의 후두골을 지지하는 부분이다. 즉, 후두골 받침부(3)는 사용자가 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머리의 경추에서 머리 위쪽 방향으로 연장되는 부분이다. 후두골 받침부(3)는 가운데 부분이 주변에 비해 낮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오목한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022] 측면 연장부(5)는 경추 받침부(1)와 후두골 받침부(3)에서 양측면으로 연장되는 부분이다(도 5에서 구간 A로 표시함). 측면 연장부(5)는 경추 받침부(1)와 후두골 받침부(3) 보다 높이가 높게 이루어질 수 있다.

[0023] 경추 받침부(1)의 양사이드측과 측면 연장부(5) 사이에는 당김방지홈부(7)가 배치된다. 당김방지홈부(7)는 단면이 반원형으로 골과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y방향(도 1 기준)을 따라 길게 배치되는 홈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당김방지홈부(7)는 경추 받침부(1)의 양측면과 측면 연장부(5)와 경계를 이루는 부분에 제공되며 사용자의 경추와 나란한 방향으로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24] 이러한 당김방지홈부(7)는 사용자가 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경추 받침부(1)가 눌리게 되는데 이때 측면 연장부(5)와 경계를 이루면서 측면 연장부(5)가 경추 받침부(1) 측으로 당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0025] 그리고 경추 받침부(1)와 후두골 받침부(3) 사이에는 당김방지홈부(7)가 연장되는 연장 당김방지홈부(7a)가 일부 구간에 제공될 수 있다(도 1에서 구간 B로 표시함). 연장 당김방지홈부(7a)는 당김방지홈부(7)에서 연장되어 x방향 또는 -x방향(도 1 기준)으로 연장될 수 있다. 연장 당김방지홈부(7a)는 당김방지홈부(7)과 직각방향으로 연장되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일정한 각도를 이루며 연장되는 것도 가능하다.

[0026] 연장 당김방지홈부(7a)는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추 받침부(1)와 후두골 받침부(3)의 경계를 따라 제공되는 것도 가능하다.

[0027] 한편, 경추 받침부(1)와 후두골 받침부(3)의 아래 측에는 베개의 높이를 조절하는데 이용되는 높이조절홈부(9)가 제공될 수 있다.

[0028] 높이조절홈부(9)는 평면에서 보아 대략 사각형의 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높이조절홈부(9)는 베개의 뒤쪽(도 2에서 -y 방향)에 개구부(9a)를 이루고 베개의 내부에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29] 높이조절홈부(9)의 개구부(9a)의 반대측 끝 부분에는 수평선과 각도 a를 가지는 형상유지부(9b, 도 3 참조)가 제공된다. 형상유지부(9b)는 개구부(9a)의 반대측 벽면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개구부(9a) 측으로 일정한 각도로 경사를 이루는 경사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030] 높이조절홈부(9)의 형상유지부(9b)는 경추 받침부(1)의 변형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높이조절홈부(9)의 형상유지부(9b)는 높이조절홈부(9)에 높이조절패드(11)가 삽입여부에 관계없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경추 받침부(1)의 변형을 줄여 경추의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다.

[0031] 높이조절패드(11)는,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서로 겹쳐져 배치되는 제1 패드(13)와 제2 패드(15)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제1 패드(13)에는 제2 패드(15)가 겹쳐져 삽입되는 수용홈부(13a)가 설치될 수 있다.

[0032] 제1 패드(13)에 제공된 수용홈부(13a)에는 제2 패드(15)의 높이를 기준으로 일부가 삽입될 수 있다. 즉, 제2 패드(15)는 제1 패드(13)의 수용홈부(13a)에 삽입되더라도 일부의 높이가 z 방향으로 돌출되어 배치될 수 있다.

[0033]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0034] 먼저, 사용자는 경추 받침부(1)에 경추 부분을 대고 후두골 받침부(3)에 후두골이 위치하도록 눕는다. 이때 경추 받침부(1)는 사용자의 경추에 의해 눌려진다(도 5에 화살표로 표시함). 그러나 당김방지홈부(7)의 완충 작용에 의해 측면 연장부(5)는 경추 받침부(1)으로 함몰되거나 휘어지지 않고 형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작용은 베개의 변형이 최소화되면서 사용자의 경추 부분을 측면 연장부(5)가 압박하는 것을 방지한다(도 5 참조).

[0035] 마찬가지로 연장 당김방지홈부(7a)의 완충작용에 의해 측면 연장부(5)의 일부분과 후두골 받침부(3)의 일부가 경추 받침부(1)측으로 함몰되면서 변형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인체공학적 설계로 이루어진 베개의 변형을 최소화시켜 안락함을 유지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0036] 그리고 사용자는 자신의 두상의 모양이나 크기 또는 취향에 따라 베개의 높이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즉, 베개를 낮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높이조절홈부(9)에서 높이조절패드(11)를 모두 제거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높이조절홈부(9)에 제공된 형상유지부(9b)는 경추 받침부(1)를 지지하고 있어 경추 받침부(1)의 변형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0037] 그리고 사용자가 베개를 좀 더 높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높이조절홈부(9)에 높이조절패드(11)를 삽입한다. 이때 높이조절패드(11)는 제1 패드(13)와 제2 패드(15)를 겹쳐서 사용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높이조절패드(11)를 여러세트 겹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형상유지부(9b)가 경추 받침부(1)를 지지하고 있어 경추 받침부(1)의 변형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도 6 참조). 따라서 사용자는 본인의 두상의 모양에 맞추어 안락한 상태로 베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경추 받침부(1)의 변형을 최소화시킴으로서 목디스크 환자와 같이 베개의 높이와 형상에 민감한 환자들에게 더욱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다.

[0038] 이상을 통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한 도면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또한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호의 설명

[0039] 1. 경추 받침부,

3. 후두골 받침부,

5. 측면 연장부,

7. 당김방지홈부, 7a. 연장 당김방지홈부,

9. 높이조절홈부, 9a. 개구부, 9b. 형상유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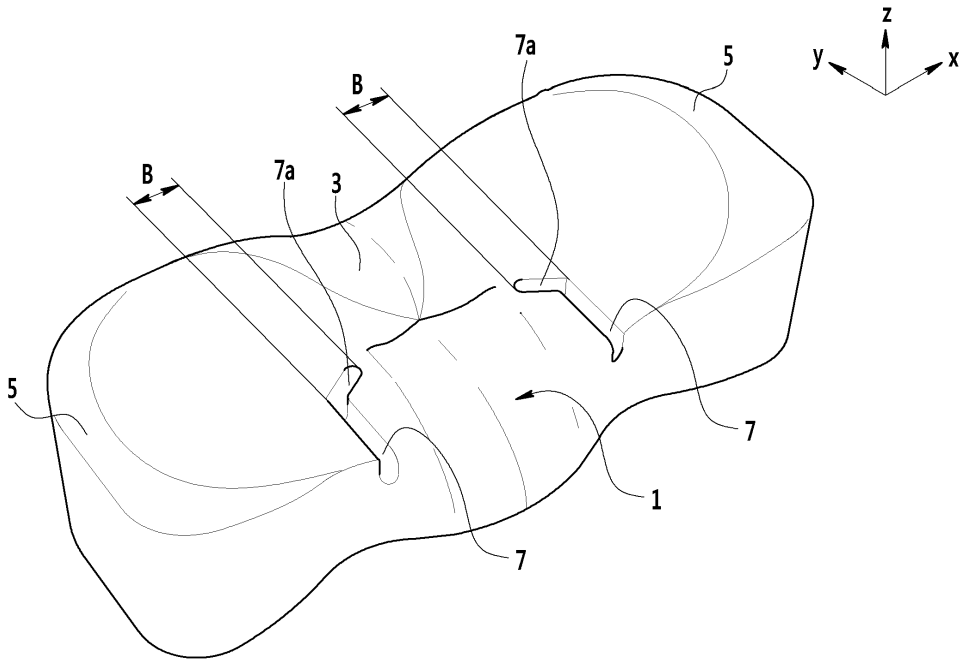
11. 높이조절패드,

13. 제1 패드, 13a. 수용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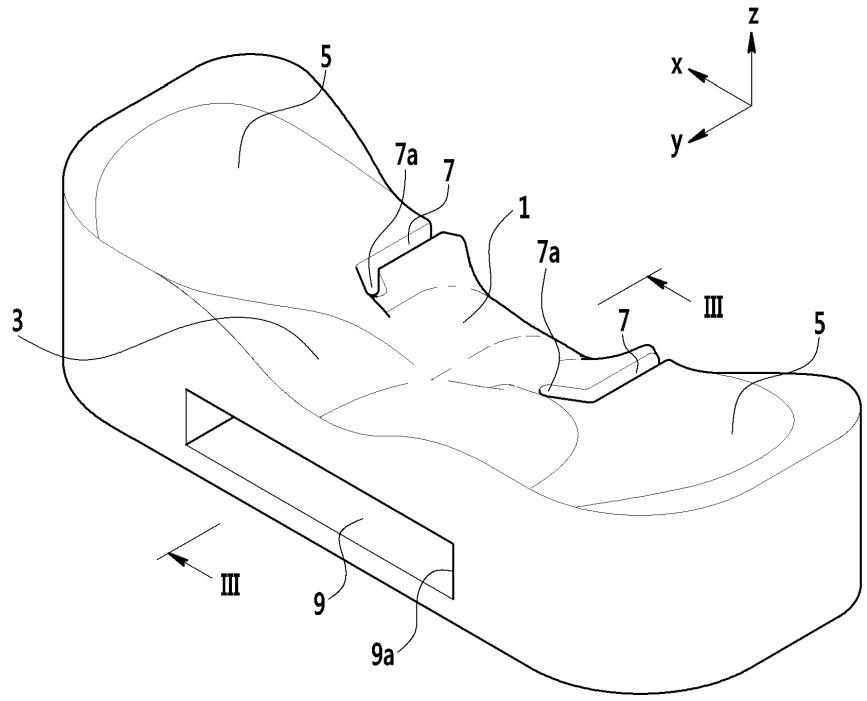
15. 제2 패드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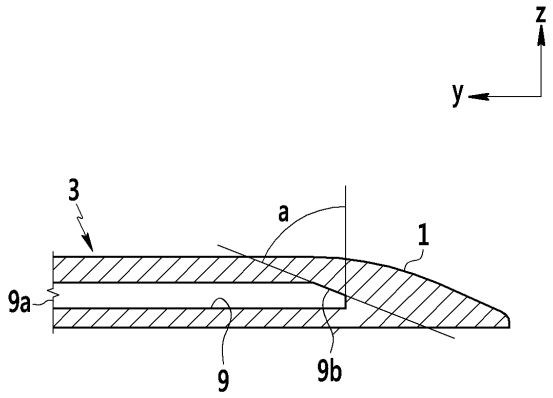
도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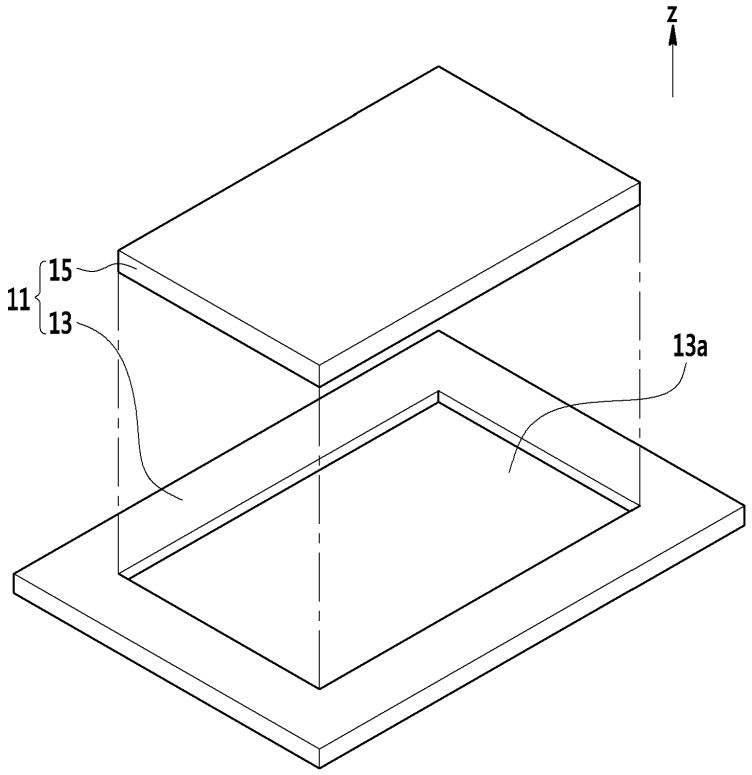
도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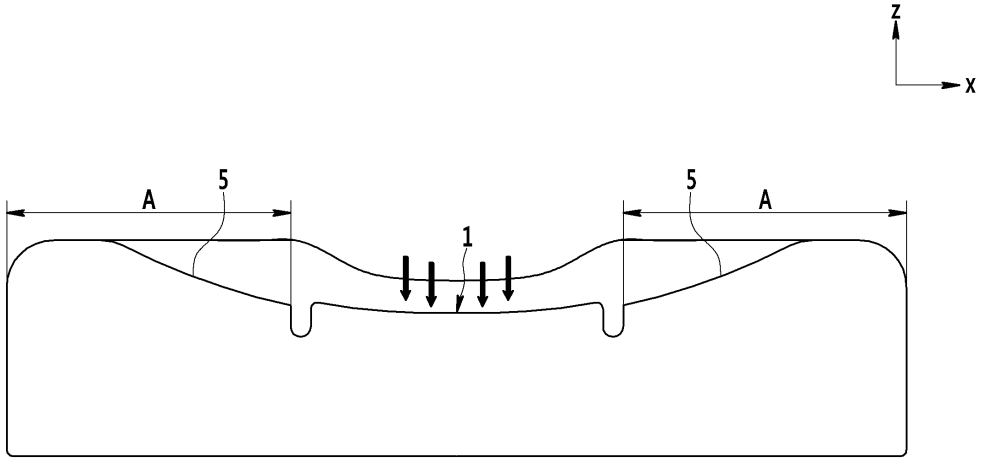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